



# 채플린,

# 지팡이를 잊어버리다

장소 학생회관 1층 블루큐브

일시 11월 13일 7PM, 14일 7PM, 15일 2PM 7PM



## 극 회 장



09 김현우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국예술연구회-숭대극회 극회장을 맡고 있는 09학번 김현우입니다.

어느덧 2014년도 봄,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을...연극과 함께 잘 어울리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가을도 지나면 겨울이 오고 2014년이 마무리 되겠죠. 이번 가을, 저희 숭대극회는 '채플린, 지팡이를 잊어버리다.'라는 공연을 선보이려고 합니다. 이번 가을정기공연에는 저도 캐스트로 참여하게 되어서 감회가 새로운데요,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아쉬웠던 올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가을정기공연 '채플린, 지팡이를 잊어버리다.', 숭대극회가 힘을 모아 만든 2014년도 2학기의 결과물입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마음속에 자그마한 보석이 남아있길 바랍니다.

관객 여러분께 이 공연을 보시는 시간이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공연을 보러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극 '채플린, 지팡이를 잊어버리다.'가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모든 숭대극회 재학생들과 항상 도와주시는 졸업동문선배님들, 그리고 숭실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 부 회 장



10 오광규

처음에 부회장이란 역할과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잘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잘했다는 생각은 잘 들지 않습니다.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극회생활을 4년째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꼈고 활동하게 해준 숭대극회에 감사드립니다!

## 연 출



11 박희진

연출이 된다는 상상을 할 때마다 악막해지기도 했지만 두근거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는 건 많이 없지만 그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저를 믿고 함께해준 9명의 캐스트 분들, 하루하루 연습할 때마다 열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하나조차 제대로 전해주지 못하고, 부족한 제 코멘트를 듣느라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 늘 미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시간 항상 함께하며 많이 고생한 기획 연교에게 감사합니다. 항상 꼼꼼하고 연출만큼 많이 신경 써주는 연교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준 조연출 성미와, 기획을 도와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해준 부기획 태경이에게 감사합니다. 이것저것 귀찮게 물어볼 때마다 항상 좋은 답변을 해주는 성미가 있어 든든했습니다. 신입생이지만 믿을 직스러운 태경이가 있어 즐거웠습니다.

좋은 연극을 만들 수 있게 힘써준 스텝 여러분들도 참 감사합니다. 많은 분야에서 힘써주는 우리 무대, 소품, 음악, 음향, 조명, 분장, 포스터, 홍보 스텝들이 없었다면 절대 좋은 공연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지 않은 시간 이번 연극을 위해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 및 재학생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조연출



13 이성미

극회에 들어온지 1년 조금 지난 시간, 조연출을 맡게되어 감사하기도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좋은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긴시간동안 여러분들의 손길이 수고하여 올려지는 무대인만큼 많은 분들의 마음이 감동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신 숭대극회 모든 선배님들, 동기들께 감사하고 행복한 극을 올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앞으로 더 즐거울 숭대극회를 기대하며 '채플린, 지팡이를 잊어버리다' 시작합니다.

## 기 획

연극의 수많은 매력 중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 같습니다.

일학년 때는 배우로써 그 매력을 느꼈고

2년이 지난 지금, 기획으로써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대 위에 배경을 만들고 조명을 비추며 음악이 흐르게 만드는 작업은 신기하고도 힘든 일입니다.

연출님과 저, 그리고 모든 스텝들이 함께 꾸민 이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만들어 갈 이야기는 어떨지 벌써부터 궁금하고, 설렘입니다.

8월부터 두 달 넘는 시간, 저희 '채플린' 팀! 정말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비어 있던 무대가 새로운 공간으로 채워졌듯이, 마지막으로 관객석이 채워질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로 공연장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연극, 재밌게 즐겨주세요 :)

p.s 제 의견에 항상 귀 기울여주시고 의견 나눠주신 연출 희진언니, 군말 한 번 하지 않고 저를 도와 준 태경이, 연기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준 성미, 그리고 제 곁에서 기획 일의 구석구석을 도와 준 17명의 스텝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12 김연교

## 부 기 획



14 이태경

극회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많은 역할이 부기획이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저 묵묵히 맡은바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기획님이라고 불러주시는 선배님들에게 미움받지 않는 후배가 되기 위해서 더욱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연극이 쉽게 풀려 질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번도 한 적 없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흡하지만 잘 이끌어주신 기획누나도 고맙고 같이 회의를 한 스텝팀들도 감사드립니다. 꼭 성공리에 연극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그때까지 더욱 열심히하는 부기획이 되겠습니다.



# 작가 소개

## 서현철

연극과 뮤지컬을 넘나들며 꾸준하게 화제작을 올리고 있는 대한민국 배우.  
대학로에서 코믹배우를 끔으라고 하면 많은 관객들의 한 손가락에 들어가는 코믹연기의 대명사이다.  
연극 '황구도'(1994)로 데뷔했고 1995년 한국연출가협회 신춘문예 최우수연기상, 2006년 동아연극상 신인연기상을 수상했다.  
TV드라마와 영화에도 출연하고 있지만 연극을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고, 뮤지컬도 섭렵하고 있다.  
출연작에는 연극 '너와 함께라면', '오빠가 돌아왔다', '늘근도둑이야기', 뮤지컬 '판타스틱스', '라디오스타', 드라마 '신데렐라 언니' 외 다수가 있다.

# 작품 소개

총 4가지 에피소드와 세 번의 막간극으로 구성된 옴니버스 연극.

인생의 몇 가지 문제, 그러나 인생의 전부를 대표할 수도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탄생, 사랑, 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코믹하지만 진지하게 그려내고 있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쉽게 살 수 있는 가벼움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유머가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해 있다.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연출 의도

일상에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병원 청소부 아줌마에게도 자식이 있고, 지하철 장사꾼 아저씨에게도 부모님이 있듯이 누구에게나 이야기는 있습니다.

네 개의 에피소드와 막간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주인공입니다. 평범한 우리네들의 모습을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연극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무언가를 잊어버리고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연극적인 면에서는 참여하는 배우들 모두가 돌보일 수 있는 연극이라는 점이 매력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 배우들의 연기를 볼 수 있다는 즐거움이 관객 여러분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 캐스트 일지

9/30

장황하게 늘어놓을 말들은 없지만 우리 캐스트들이 꼭 알았을 해서.  
'다음 날 연습이 기대되게 하는 캐스트들 만나서 참 좋아요'  
'모두의 맘이 나와 같길'



10/1

고맙다 같은 팀 해줘서. 열심히 해서 좋은 극 올리자.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니까!

10/10

자신의 숨겨진 모습까지 공유하고 서로를 더 잘 알면서 지낸다는 게 신기하고 새롭고 기슴벅차다는 생각이 드네요.

10/10

커튼콜마저 끝나고 박수갈채가 잦아들어 암전이 되어서도 모두의 가슴이 화상이라도 입은 듯 뜨거운 그런 무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10/17

여러분 두려움을 즐기고 바쁨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중에 '참 좋은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21

좋은 사람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게 되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는 느낌에 극회에 오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다.

10/25

시험 끝나고 술 한번 마셔요.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하기 주저될 때가 있어요. 사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위로의 말이 오히려 재촉하는 게 되지는 않을까 해서

10/27

감정을 키우고 자신을 집중화시킨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은 이 연극이 끝나면 자신을 더 잘 알게 될 것이에요.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우리 서로 힘내고 서로에게 도와서 잘 끌냅시다.



10/29

으아 힘들어

11/1

앞으로 2주도 안 남았다는 게 안 믿겨지네요. 빨리 끝났으면 했는데 지금은 그 날이 온다는 게 두렵달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달까...

솔직히 요즘 길다가다 연극이 가장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 만큼 내 삶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다 캐스트 당신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 캐 스 트,



막간극 노인, 장사3  
09 김현우



장사1, 노인

14 김상현



청소부, 막간극 아들

14 편무송



남자

11 박우영



소녀, 할머니

14 신다인



여자

13 박하연



사내

12 김승범



장사2, 단속반,  
막간극 청년

14 이효기

# 스텝



## 도움

- 06 서동현
- 08 정성원
- 09 이근희
- 09 홍창교
- 09 이경문
- 10 김동환
- 10 김지영
- 12 임한성
- 13 고세이
- 13 김동욱
- 14 김서우



### 10대

집.  
내가 휴식할 수  
있는 보금자리

친한 친구들이 절 소중  
개내강 있으면  
심심한 틈이 없이  
재미있다

가족  
슬플 때 기쁠 때  
항상 곁에 있다.

### 30대

기족이 소중하다.

독립해 혼자 살다보니 일이  
끝나고 들어갔을 때 아들 하며  
불러주시던  
부모님이 그렇다  
기족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

가족.  
떠올리면 항상  
따뜻하고, 든든하고,  
고마워서...

우리 아내가 가장 소중하다.  
가족이 있음으로 살아갈 의지  
생기지만 바로 옆에 언제나  
내편인 사람이 있다는 걸  
정말 행복을 주는 거라 나한텐  
가장 소중한 아내다.

### 20대

기쁨이 소중하다.  
취업을 준비하며  
공부하고 이건 저건  
하면서 보니  
기쁨이 제일 우선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이 가장  
소중하다

### 40대 이상

가족.  
우리 아이들과 남편이  
밤늦게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계속 연락하게 되고  
너무 걱정된다. 내가 이  
셋과 떨어지게 되는 것을  
상상해본 적이 없다.  
4명의 가족이 하나의  
완전체이다.

가족의 건강과  
편안한 생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은 세상에  
무엇하고도 바꿀수  
없기 때문이다.



## 정기 공연 연보

- 1921년 6월 13일 연총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레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 1923년 7월 27일 전원극 <우의리행진> <기개인간> <동백꽃> <십년후> 엠엔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극> 고교생후원회 주관
- 1965년 11월 제1회 <페공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28일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10일 / 10월 28~29일 제3회 <전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연출
- 1969년 10월 28~29일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연출
- 1970년 5월 15일 제5회 <성자와 생활>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재 연출
- 1970년 10월 28~29일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케트 작, 김양기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종화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남해해독에 대하여> 안론 체新常态 작, 한영재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황금단지> 푸리우터스 작, 유근재 연출
- 1971년 5월 26일 / 27일 / 28일 / 31일 / 6월 1~2일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4~5일, 11일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연출
- 1972년 5월 25~27일 제9회 <생일 파티> 헤럴드 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21~23일 제10회 <미시시피의 결혼> F.뒤렌마트 작, 고봉인 연출
- 1973년 10월 25~27일 제11회 <방> H.핀터 작, <기도> <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25~27일 제12회 <정의의 사람들> a.까워 작, 정종화 연출
- 1975년 6월 9~10일, 12~13일 제13회 <싸움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기획, 안홍순 연출
- 1975년 10월 29~31일 제14회 <비단과 방화법>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홍순 연출
- 1976년 6월 1~3일 제15회 <인터내셔널> 정 클로드 반 이태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1976년 10월 25~28일 제16회 <뱀> 정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15~18일 제17회 <EQUUS> 피터쉐퍼 작, 백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10~13일 제18회 <EQUUS> 피터쉐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5~6일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1978년 10월 24일 제20회 <EQUUS> 피터쉐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민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18~19일 제21회 <한강 2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29일, 10월 2일 제22회 <초본> 오태석 작, 이정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5~6일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 1981년 6월 12~13일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뒤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1981년 11월 12~14일 제25회 <달맞이 꽃> 김병종 작, 전석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12~13일 제26회 <카리큘라> A.까워 작, 음태웅 기획, 지숙 연출
- 1982년 10월 7~8일 제27회 <섀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20~21일 제28회 <미시시피의 결혼> F.뒤렌마트 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7~8일 제29회 <트레버> 존 보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열 연출
- 1984년 5월 24~26일 제30회 <도가니> A.밀러, 이종규 · 엄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11~13일 제31회 <변전소> 존 스톤텐버그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9~11일 제32회 <빈민굴> 막심 고르끼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 정기 공연 연보

- 1985년 11월 21일, 23일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4~6일 제34회 <EQUS> 피터쉐퍼 작, 하성무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11~13일 제35회 <코뿔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1987년 6월 3~5일 제36회 <한 여름 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 권형진 · 이준석 기획, 오정열 연출
- 1987년 9월 10~12일 제37회 <A.까워> 작, 오정열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2~4일 제38회 <세 번은 꽂힐 때 번은 길게> 이어령 작, 이충일 기획, 오정열 연출
- 1988년 10월 6~8일 제39회 <안나나? 놔내나!>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25~27일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호 연출
- 1989년 10월 10일 / 17~18일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오정열 기획, 이반 연출
- 1990년 5월 24~26일 제42회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30~9월 1일 제43회 <한국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1년 9월 5~7일 제45회 <날>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19~21일 제46회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화 · 정현용 기획, 홍은영 연출
- 1992년 9월 17~19일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홍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8회 <서일죽음즈멘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21~23일 제49회 <택시택시> 김상수 작, 소장호 · 이명성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5월 26~28일 제50회 <굿 닉타> 닐 사이먼 작, 정석웅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29~10월 1일 제51회 <안티코너>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5년 5월 25~27일 제52회 <상지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옥 기획, 류성환 연출
- 1995년 11월 26~28일 제53회 <아리아로진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1996년 3월 7~9일 제54회 <자살> 김현목 작, 한석윤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5~7일 제55회 <독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충희 연출
- 1997년 3월 13~15일 제56회 <우리 음네> 손튼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8~9일 / 16일 / 17일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 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1998년 3월 18~20일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26~28일 제59회 <불고기의죽음>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11~13일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2~4일 제61회 <세상 낙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4~6일 제62회 <아름다운 시인> 장진 작, 이운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0년 8월 31~9월 ~2일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극 연출
- 2001년 3월 29~31일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육재 기획, 서정훈 연출
- 2001년 9월 6~8일 제65회 <바라보다 달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13~15일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고티 작, 김영걸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3월 6~8일 제67회 <목수동에서면 압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미나 기획, 윤장한 연출
- 2003년 9월 4~6일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케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3~5일 제69회 <변화씨>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혜정 연출
- 2005년 3월 2~4일 제70회 <미술가계>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육재 연출

## 신입생 환영 공연 연보

- 1975년 3월 10~12일 제1회 <악마와 톱> W. 에이닝 작, 김홍수 연출
- 1976년 10월 29~31일 제2회 <보석과 연인> 이강백 작, 김득남 연출
- 1977년 3월 16~18일 제3회 <줄발> 윤대상 작, 전경호 기획, 안홍순 연출
- 1979년 3월 29~30일 제4회 <셋> 이강백 작, 한철 기획, 정재호 연출
- 1981년 3월 30~31일 제5회 <아리아 2 카포> E.ST.MILLAY 작, 이영환 기획, 오세한 연출
- 1982년 3월 24~25일 제6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김용락 작, 최시영 기획, 이용섭 연출
- 1983년 4월 16일 제7회 <블랙 코미디> 블랙 쉐퍼 작, 전희식 기획, 흥려석 연출
- 1984년 3월 8~9일 제8회 <개인의 소공간> 호랄드 작, 차세훈 기획, 김인보 연출
- 1985년 7월 20일 제9회 <아리아 1 카포> E.ST.MILLAY 작, 이영민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3월 17~19일 제10회 <인형의 집> 헨리 입센 작, 이길영 기획, 김정은 · 위성신 연출
- 1987년 3월 12~14일 제11회 <더러운 손> 샤트르 작, 백윤형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3월 24~26일 제12회 <불가불가> 이현화 작, 천승범 기획, 황금실 연출
- 1989년 3월 23~25일 제13회 <혹인 수녀를 위한 진혼곡> 까뮈 작, 홍덕태 기획, 박경근 연출
- 1990년 3월 8~10일 제14회 <우울증 환자> 보토스트로우 작, 이영민 · 안상준 기획, 박혜수 · 백로라 연출
- 1991년 3월 7~9일 제15회 <노크노크> 줄수파이터 작, 정현용 기획, 이범준 연출
- 1992년 5월 28~30일 제16회 <꿈 먹고 물 마시고> 이근삼 작, 김상겸 기획, 양현준 연출
- 1993년 3월 11~13일 제17회 <메두사> 조지 케이저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3월 10~12일 제18회 <어린왕자> 생텍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홍석환 연출
- 1995년 3월 9~11일 제19회 <봄 날> 양명호 기획, 정석웅 연출
- 1996년 3월 20~26일 제20회 <울어라 뱃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경근 연출
- 1997년 5월 29~31일 제21회 <로물루스 대제> 뒤렌마크 작, 박정극 기획, 정석웅 연출
- 1998년 6월 5~7일 제22회 <결혼> 이강백 작, 강길호, 안병진 기획, 류민주 연출
- 1999년 6월 3~5일 제23회 <자매> 라투아니아 작, 홍신태 기획, 권내리 연출
- 2000년 11월 16~18일 제24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포 작, 김명진 기획, 강길호 연출
- 2001년 5월 30~6월 1일 제25회 <노부인의 방문> 뒤렌마크 작, 강혜정 기획, 서정우 연출
- 2003년 5월 29~31일 제26회 <택시드리벌> 장진 작, 김종백 기획, 한주영 연출
- 2008년 6월 4~7일 제27회 <한여름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 박한경 기획, 이원진 연출
- 2009년 5월 28~30일 제28회 <미미의 집> 정다운 작, 정성원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18~20일 제29회 <웃음의 대학> 미타니 코우기 작, 서동현 기획, 정현승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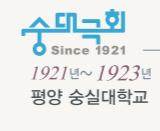
## 채플 공연 연보

- 1985년 9월 제1회 <예언자와 목수>, 엄세범 기획, 이용섭 연출
- 1986년 10월 제2회 <20세기의 그리스도>, 음태웅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10월 제3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민 기획, 이준석 연출
- 1996년 5월 제4회 <공포를 넘어서>, 이명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6년 10월 제5회 <사랑에 관한 다섯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승태 연출
- 2007년 10월 22~25일 제6회 <칼멘의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육재 연출
- 2008년 9월 28~10월 2일 제7회 <결혼> 이강백 작, 장한샘 기획, 김성훈 연출
- 2009년 9월 28~10월 1일 제8회 <헤파이스토스의 춤> 정다운 작, 정한길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10월 25~28일 제9회 <다섯번재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2년 10월 29~11월 1일 제10회 <도덕적 도둑> 다리오 포 작, 원종진 기획, 오광규 연출

## 워크샵 공연 연보

- 1991년 10월 7일 <왕> 이준석 작, 남재우 기획, 이준석 연출
- 2010년 6월 5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고티 작, <가출소녀 우주여행기> 김지용 작, 유병기 기획, 김운배, 서동현, 김진욱 연출
- 2010년 11월 29일 <서툰 사람들> 장진 작, 최상원 · 박희진 연출
- <에쿠우스> 피터 쉐퍼 작, 김동환 연출

**승대극회 제85회 정기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승대극회 동문회 일동 -**



Since 1921

1921년 ~ 1923년

평양 숭실대학교

1965년 11월

서울 숭실대학교

승대극회 창단 공연

<페공으로 돌아오다> 소설가 황석영 작,

숭실대학교 명예교수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2015년  
50th  
승대극회 창단 50주년  
in Seoul**

